

서론: 당신은 당신을 증언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삶을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느낍니다. 법정(法庭)에 선다면, 변론비용을 지불한 변호사(辯護士)가 뒷받침해주기도 하겠지만, 돈이 없어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를 증언해줄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를 증언해주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I.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증언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子女)인 것을 증언(證言)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증언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왜 이런 증언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아야 하겠지요? 묵상해보면 그 이유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결과 1)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2)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경에서 보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필요없어요. 그는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소박해보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 영원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입니다.

* 사도요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라, 특권(特權)에 속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12-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權勢)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權勢)라 불렀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ἐξουσία' (**엑수시아**, exousia)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ight(권리)', 'authority(권위)', 혹은 'power(권력)'로 번역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영어성경에서는 주로 “**the right(권리) to become children of God**”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 '엑수시아'는, 당시 로마제국의 공식용어 중 하나로 '법적, 사회적 권한'을 가리킬 때 쓰였으며, “권한, 권위, 자유재량, 허락됨,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 또는 특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權利)을 설명한 것입니다.

1) 요한은 이 권리가, 혈통(血統)이나 육정(肉情)이나 사람의 뜻으로 얻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도, 학벌(學閥)이나 인맥(人脈)으로 얻을 수 없다고 확정합니다. 요즘말로는 '금수저'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흑 수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사도요한은 이 특권의 오해(誤解)가능성을 처음부터 제한(制限)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신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하나님이 된다면,(물론들 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의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入養)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15절입니다.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從)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養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영>은 다른 분이 아닌 성령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 하나님이 양자를 만드는 일에 간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던 바로 그 분이, 증언도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 이제 16절을 봅시다.

II.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의 두 방향(方向)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子女)인 것을 증언(證言)하시나니,

여기에 힌트가 보입니다.

이 말씀엔 그 증언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그건 우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증언의 두 가지 차원(次元)을 봅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적(內的)증언과 외적(外的)증언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증언입니다.

1: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증언

로마서 8:16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한 말씀에 우리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삶의 의욕과 사명감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화 1: 예수님의 침례식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 3:17).

새내기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예수는 연약함을 공유하시었습니다.

그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속에서 수천년을 기다려온 분이십니다. 때가 차기까지.. 갈라디아 4:4-5절은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

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이것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작업(作業)이 수 천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다림의 지루함이나 답답함뿐 아니라 말로 다할수 없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오셔서 30년의 유아기를 보내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놀랍게도 그가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다는 것이야 말로, 더더욱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아들은 힘을 얻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 3:17). 이 얼마나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얼마 후,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확인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후반부의 변화산상(變化山上)에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난 것일까요?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의논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누가복음9:30-31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別世)하실 것을 말할새”라고 한 것을 보면, 주님도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模範)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자녀의 확신(確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正體性)의 혼란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使命)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언해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사탄의 정죄나 자책, 세상의 평가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성령의 외적 증언—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

성령의 증언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승전의 비결이 됩니다.

어쩌면 위에서 말한 예수님의 침례식과 변화산상의 말씀도 이런 외적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고, 영향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화 2: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 내 아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백성을 보내라”(출 4:22-23).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宣布)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상 왕 앞에 직접 증언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두려운 상황,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받을 때, 신앙인은 비로소 세상 앞에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예화 3: 옴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도 옴기에 나옵니다.

옴기 초반,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옴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땅에 없느니라”(옴 1:8)고 하십니다.

옴기 1:1절에 의하면, 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옴의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고,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언해주신다는 그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도전적인 존재인 사탄 앞에서도 옴의 존재와 신앙을 변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탄, 권세자들 앞에 때로 연약함, 오해,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증언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III. 우리를 증언해주시는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별 감정(感情)의 변화(變化)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내 자녀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相續者)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1) 우리는 상속자(相續者)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분명한 보증이 있는 셈입니다.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niv)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joint-heirs* with Christ (kiv)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NASB)

좋지요 ?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라기 보다 사명(使命)이 있다고 해야 할지, 반드시 통과해야할 과정이 있다할지...17절 후반부에서 18절까지를 봅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苦難)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4절(36-39)에 등장하니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위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고난의 목록(目錄)들>입니다.

*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苦難)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안전(安全)이나 건강(健康)이나 번영(繁榮)을 꿈꾸며 삽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데 의구심(疑懼心)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정반대(正反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通過)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상속자(相續者)의 훈련(訓練)**이라는 것입니다.

18.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苦難)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靈光)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불평없이 고난을 당하십시오, 고난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하실때까지, 고난가운데 거하십시오. **고난이 영광입니다.**

* 평생을 살아온 목회자들,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난 받았던 그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 실제로는, 그 순간들이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변민하지 않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고난받는 형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합당한 과정속에 있는 성숙해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 판단하려거든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십시오. 그 관점으로 그들을 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우면 됩니다.

신약(新約)의 히브리기자는, 구약(舊約)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受侮)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償)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11:24-26)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사도가 제시하는 **다른 비전**을 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認識)의 지평(地平)을 넓혀주는 전혀 다른 세계관(世界觀)입니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解放)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榮光)의 자유(自由)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매 절마다 (8:19-22절에서 4번) 등장하는 **피조물(被造物)**이라는 단어에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피조물'은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 저주와 고통을 겪는 모든 자연계와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동·식물, 지구와 자연환경, 인간을 포함한 전 창조 세계를 지칭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피조물에 대해 언급합니다**” 피조물의 의인화인가요? 그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으니**” 결국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우주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와 우주를 뜻하며 인간의 죄(타락)로 인해 신음하고 부패하며, 장차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 안에 무슨 메시지를 넣은 것일까요?

1) 혼자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22)

2)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거기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응원(應援)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증언을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라. 믿음의 선한 경주와 싸움을 잘 싸우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로마서 11:25)>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는 순간까지, 이 선한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맺음 :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자 맺어주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며 세상과 마귀사탄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나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이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건들지 말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것을 믿을 때, 고난이 이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가운데서 담대히 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은 당신을 변호해주고 증언해주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과 죽음이후에서도 나를 증언해주시는 분.

세상이 나를 어찌 판단하든지, 사람앞에서와 천국문앞에서와 하나님앞에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나라 상속자임을 증언하실 분.

이 분은 고난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급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있음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다시 발견합니다.

늘 우리를 증언해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증언해주실 성령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